東亞日報

臨時政府奉迎會場

臨時政府奉迎盛式

昨日訓練院에서壯行

朝鮮의 心臟인서울市의百萬民衆은感激과興奮에싸여十二月一日을 마지하고잇다 이날은 三十六年만에 聯合軍의英雄的勝利에 呼應하야萬里異域에서 七顚八起의艱境에서의血鬪로우리疆土를차저三千萬民衆과 함께 기뻐하려는 大韓民國臨時政府를歡迎하게된 聖스러운서울市民의 歡喜의日이다

午前十二時를알리는싸이렌이울자市內男女中等以上專門大學生 朝鮮建國軍及市民一般의訓練院頭會集은瞬息間에十萬을넘게되엿는데 壯嚴한樂隊에마추어午後一時半에市民主催로大韓民國臨時政府奉迎式이서울그라운드에서 尹潽善氏司會로開幕되엿다 이어서吳世昌氏의開會辭李仁氏의奉迎文朗讀, 權東鎭氏의萬歲三唱으로幕을다뎟다奉迎文은權東鎭氏金性洙氏李仁氏三氏를通하야金九主席께奉呈하기로하고建國軍을先頭하야歷史的聖典인街頭行列로옴맛다

奉迎式順序

一、司會 尹潽善
一、國歌奉唱
一、開會辭 蘇完奎
一、奉迎文朗讀 李仁
一、注意事項 徐相天
一、萬歲三唱 權東鎭
一、서울運動場進軍
一、安國洞四街에서萬歲三唱
一、奉迎文進呈 權東鎭
一、解散

百萬市民을代表

金主席에게奉迎文贈呈

建國軍의우렁찬建國歌는서울市를震動시키며行列의長蛇陣은 安國町四街里를向進하엿는데, 蒼空을亂舞하는 六花는마치도 失國하자亡命하야海外風雨裡에 血鬪로二十七個星霜을하루가치繼續하여온 臨時政府閣員의 過去를象徵하는듯하엿다 下午二時二十分頃 安國町四街里北岳을등진 자그만한빌딩, 朝鮮生命會社二階에는 金九主席을中心하야 左右로李承晚博士, 李始榮氏, 金奎植氏, 嚴恒燮氏, 柳東悅將軍이 窓을열고 建國軍을先頭로 지나는男女의歡迎行列을 天地를흔드는萬歲소리에서 感慨無量하며 歡喜에넘치는表情으로마지하엿다

金主席閣下

李博士會見

還國後連日公私로奔忙中이신 金九主席은 一日李承晚博士의 招請을바다副主席金奎植博士와함께 上午十一時부터 約二時間에亘하야 敎岩莊에서 要談하엿다

◇軍政廳辭令

慶尙北道知事 자노우스키中佐
江原道知事 지몰만中佐
全羅南道內務部長代理 林文碩

臨時政府奉迎文

殘忍하기比할데업스며暴虐하기짝이업는 倭賊의桎梏下에 呻吟하는祖國을解放시키기爲하야 奉風秋雨三十星霜을 · 萬里異域에서 南轉北移하며 온갓苦楚와 가진困厄을 조곰도介意치안코 血戰开闢하야 마침내 初志의偉業을達成하고 凱旋하신 大韓民國臨時政府를 奉迎함에當하야 우리는最大의敬意를 表하나이다 八月十五日 解放의기뿐消息을 듯게되자 우리三千萬同胞는모다狂喜雀躍을 禁치못하게되는한便 一部蠢出網輩이 亂舞하야 一般大衆은 牧者업는羊의때처럼 依支할바를모르고 헤매이매어서 우리政府의遷都만 苦待하든中 뜻박게 우리最高指導者의 한분이신 李承晚博士의 音聲을듯게되자우리는마치 이리떼 속에드럿든어린羊이 牧者의소리를 듯는것처럼 기쁨에넘치어 눈물을禁치못하며 아울러 한팔의힘을 엇게는 되엿스나 한便으로 重慶에留하는 우리政府가 한時라도빨리 도라오시기를 一層더손곱아 기다리며 아침 저녁으로 西天만 바라보던 우리로서 오늘날 우리 臨時政府의 還都와 金九主席以下 閣員諸位의 溫容을 奉拜하게되매 그形容할수업는기쁨 測量키어려운 感激이야말로 三千萬同胞가 다가치 느끼는 눈물겨운 바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아페는 아직 建國의큰事業이 잇스니 어서 우리祖國의 完全한 獨立國家를 하로라도빨리 實現하도록 더 猛進努力하사기를 간절히바라며 끗트로 우리는 우리臨時政府의 모든命令과 指導에 絶對服從할것을 굿게 盟誓하나이다

檀紀四二七八年十二月一日

臨時政府奉迎會一同

戰爭再發念慮업다

추루만大統領記者團에言明

【華盛頓三十日發朝鮮通信】 추루만大統領은昨二十九日華盛頓에서新聞記者와會見하고추루만大統領은그席上에서自己는또한번三大巨頭會國를開催한다는點에對하야는그다지贊成하지안는다 美國側은獨逸管理에關하야포쓰담協定修正案을提出하엿다, 特別會議를여러번開催하기때문에國際聯盟이崩壞하엿다 列强國은모름직이非公式會議를하지말고國際聯合을全面的으로信賴할것이라고말하엿다 그러나 추루만大統領은 美國에서한포쓰담協定修正案의 內容에 關하여서는 이問題가 目下關係政府間에 交涉中이라해서 이에對하야 發表를拒絶하엿다 이에는 市民權에關한修正案 또 美國側提案의 하나라는것을 表示하엿다 이市民權은 그公平한點으로因하야 獨逸管理委員會에서 他의三個國代表가 行한決議를 有效하게하는것이다 또 佛蘭西側의 獨逸中央行政施策에關한 反對案에 對하야 美國의一新聞「뉴이로그라이트」紙는嚴格한批判을加하고잇다 그러고 一通信員으로부터 「蘇聯國이國際聯合에協調하지안흐면그結果戰爭이이러날念慮가잇지안흔가」의 質問에對하야추루만大統領은 그러한 念慮는업다고 對答하엿다 또美國의 對中政策에關한質問에對하야 今般新任의特派大使 마-샬元帥는三四日內로 重慶을向하여出發할豫定이며 同氏의主要任務는 美國이中國에對하야行하여온 根本政策을完成하는데잇다고 對答하엿다

國際聯合期待

【桑港三十日發共立通信】 추루만大統領은 二十九日華盛頓에서 國內的 및國際的情勢에關하야 新聞記者團과會談하엿다 即聯合國의獨逸共同管理委員會에서 否認權을行使하고잇기때문에失敗하엿다는報告에關하야大統領은「포쓰담宣言의修正을하기爲하야目下對策을講究中이다그러나어떠한修正을한다고하드라도그것은四個國共同下에할것이다」라고말하고또「國際聯合이그任務를遂行한다면與國은쏘聯및英國과會談할必要는업다 나는初期와가티 國際聯合이 發展하기를 希望하고잇다」고言明하엿다 美國產業의 平時基準에로의轉換에關하야 再轉換은目下完成途上에잇고또豫定보다는훨신進步하고잇으며戰爭終結直後에行하여진勞働者의第一回退職後就勞者總數는다시上昇하고잇는데現在就業勞働者의數는日本軍隊이降伏한當時와大略同數이나今後漸次增加할것이라고말하엿다

民主主義國家엔

普通選擧制緊急

英紙의中國情勢評

【倫敦三十日UP發朝鮮通信】 昨日倫敦타임스紙는社說에中國問題를取扱하여「中國情勢는內亂으로發展하고잇다中國은經濟再建이完了할때까지는聯合國의한頭痛꺼리다」라고論하엿다「中國이民主主義國家를標傍하는以上普通選擧法에依한自由選擧를實施하지안흐면안이된다現在까지는中央政府는眞正한國民의代行機關이못된다中國의事態에關한 美國輿論은區區하다武力을使用하지안코 平和的交涉을通하여서만 恒久的平和를樹立할수잇다」 허-레大使의辭任에關하여는「허-레의政策은美蘇間의關係를一層惡化시켯다」 마-샬大將의 就任으로因하야 허-레의積極的中國干涉政策이 躍進되지안흘가하는데 對하여는速斷키어렵다」고 同紙는論하고잇다

國際友好促進

極東諮問會終幕

【메르보른三十日發共立通信】 聯合國 極東諮問委員會는最後의會議를곳마치고十二月末에 日本을訪問할豫定이라고 濠洲外相에벗트博士는 二十八日華府에서 다음과갓치말하엿다 諮問委員會는 日本에對한聯合國政策의大體를 決定하는것인데 最高司令官맥·아-더元帥의特權도 考慮하지안으면안된다 또 諮問委員會의將來는 同委員會提案의具體化에依할뿐만아니라 至今까지會議에서發揮된 國際友好關係保持에期待되는바 크다

日紙幣發行禁止

【東京三十日UP發朝鮮通信】 昨日맥아더將軍은大藏省이千圓, 五百圓二種으로九百億圓의新紙幣를發行하겟다는데對하여 今後日本政府는聯合軍司令部의許可업시는 如何한貨幣의創案, 印刷, 發行도 이를禁止한다고發表하엿다 日本의平常時의 貨幣發行高는 二十億圓이엿는데 現在는 約四百五十億圓에達하엿다 맥아더將軍은 日本政府로하여금 每月通行高 未發行高 回收額新發行高를 報告케하엿다

多額의五百圓·千圓紙幣의發行은 闇取引을 助長하고 現在提案中인 戰爭利得稅를 廻避하는거와가튼 不正行爲에 機會를주다 一九四五年 一月로부터 九月에亘한 日本銀行券發行高의 急增은 인플레인 性質을띄고 經濟界에極히나쁜 影響을끼치고잇다고는말하엿다

橫說竪說

▼北緯三十八度라 原來 地理學上의用語요 地圖面上의界線이러니 ▼千態萬象이 千變萬化하는世上이라 이것이一轉하야 軍事上境界가되여지고 再轉하야 政治上障壁을形成 ▼一步를更進하야 이것이三轉하면 國土의兩斷이오 四轉하면 國權의兩斷 ▼五轉 六轉 七八九十으로 轉轉한다면 國是의兩斷에 國策의兩斷 國民의兩斷에 國魂의兩斷 ‖嗚呼라 不忍盡記 ▼北에서오는 消息에 돌리되 或者曰 奮殖整頓 或者曰 語不成說 이러하야 誰知烏之雌雄이냐 ▼橫竪子고 喚息을하거니와 ▼그윽히 생각하건대 이는 하늘이알고 땅이알고 그리고 까마귀自身이 아는일일지라 못니 까마귀여 그대의 입이요 수요 ▼心鏡가 通하면 萬里를隔해도 一室의樂이 잇스려든 아못한 三八線이 水火를不通하니 所謂 千里라 是可忍也론 孰不可忍 ▼要는障壁撤廢의 決을爲한 背水結陣의 覺悟로 總意를모으자 總動員 總血을 不足하면 大韓臨時政府를率先하는 諸列, 行列이長安에구비구비, 民心에구비구비 ○往昔엔 모시모시派가 行世를하더니만 而今엔 헬로헬로黨이 動道一時 此一時。

社說

自由의善用

一

自由의反面은束縛或은抑壓이다. 束縛과抑壓은人間이 가장嫌忌하는것은 거이本能的이라고할것이다 卽束縛과 抑壓에對하야 嫌避하는心理는 同時에 自由에對한 憧憬의本能일것이다 自由를반드시 人間生活의 自然狀態라고할수는업지만 적어도 우리에게對하야 束縛이加重되는때 이와正比例하야 自由를 憧憬하는心意도 더한칭 强烈해가는것이事實이다. 이에對한史實로는 流血로써自由를 戰取하엿든佛蘭西革命을 우리는想起하게되는것이며 또한今次大戰의 戰敗國의하나인 彼獨逸은 全體主義를標榜하야 自由라는것을 絶對로否定한듯이 印象되면서도 其實은決코自由를 蔑視함이안이엿다 獨逸의 戰時法律가운데에는 흔히 大獨逸의自由를 爲한싸홈이라는用語가 使用되엿고 이에 違反하는者는 大獨逸의自由를侵害한者라고하야極刑에處한다는 規定이잇서음을 볼수잇엇다 일로써보드래도自由란것이 얼마나 魅惑的이며 憧憬的인가를示唆함일것이다

二

過去三十六年間의 우리는 東縛속에서 살아온것이다, 日本의暴壓은 날이經過할사록 尤甚하엿고 더욱이 戰爭當時의 우리는 鐵鎖에얽겨진 奴隷그것이엿다 한편으로는 그戰爭遂行에本意안인 協力을 强制當하야 倭敵의 채쭉을 맛헤 우리의온갓것을 빼앗기면서도 다른한편으로는 그러한 抑壓과束縛에 不斷의鬪爭이繼續되엿든것이다 그럼으로 이번의解放은 客觀的으로는 聯合國의戰爭理念에 由因한具現임에 틀림이업스나 主觀的으로는 實로피로물드린 우리의革命的鬪爭의要因이잇엇다는 意義를否定할수업는것이다 이러하야 우리의念願이요 또우리의것인自由가 八月十五日을 契機로解放된것이매 우리三千萬겨레의 歡喜또한 심상할바가안이엿다 沈痛하엿든 가슴을헤치고 이江山坊坊谷谷에 뚜렷한太極旗下에 「朝鮮獨立萬歲!」의 感聲이 天地에 騷動하엿으니 웅당 우리心情의自然發露이엿는지라 누군들 이것을抑止하엿을것이랴

三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自由가實證的인保障이確立되여잇는것인가를 다시한번靜思할必要가잇지안은가 우리는 아직도 自主的主權形成의自由부터許與된데일으지못하엿고 좀은疆土의三八度線은새로운 性質의拘碍로서가로노혀잇다 다만 우리는從來의 업스하엿든倭敵의束縛에서 버서낫다는 意味로는 自由의解放임에 틀림은 업쓰나現實的實情의새로운 拘束이 아직도完全한自由의 領域에일으지못하게한다 그럼으로 우리는 完全한自由의實踐的課題로서 于先主權形成의建國工作의當面問題인지라 自由의限界를分明치못한까닭일가 自由는脫線하야 無秩序의 混亂狀態를 惹起하고잇는 現象을볼때 實로遺憾된바가업지안하다 前日李承晚博士께서도 自由의類型으로서 言論, 集會, 結社, 出版, 宗敎信仰의自由라는것이 世界各國의共通한 自由權인데 우리나라의 自由로서는일안는 自由가잇는가십다라고하여 諷刺的表現으로이를 警告한바잇거니와 일안는自由 工夫안는自由 秩序를 紊亂식히는 自由道義를 無視하는 自由가우리나라 特有의自由랑고한다면 으로因하야 朝鮮은아직도自主獨立의資格이업다는 結論이規定될것밧게 업슬것이다 이는모두가 自由의濫用인것으로 勤勞大衆은 學徒는그리고 一般大衆은 우리가 못처럼 獲得한自由를善用하야建國途上의 우리로서眞心한 自由國民이될것을期約하지 안으면 안될것이다

◇春谷 高羲東氏揮毫

一日一詠

朔風은 님의곳에 불고 明月은 눈속에 찬되 一萬里長城에 一長劍 집고 서서 긴파람 큰한소리에 것칠것이업세라 (古金宗瑞)

◇投稿歡迎 一人一首限

總力을一點에集結

完全한自主權獲得하기까지

獨立促成施策에協力하자

當面한우리의信條

一카이로宣言에約束된朝鮮의自主獨立은언제實現나 이것이 三千萬 우리民族이 다갓치待望하는間이다 東西兩域에서 日軍의 侵略主義와 世界의死鬪를展開한 聯合軍의英雄的勝利의凱歌를 게되어 드듸어朝鮮에까지 美蘇兩軍이進駐한지 四個月을마지하게되엇다 지난 九月 八日朝鮮에進駐한美軍「하지」中將은 大會明하기를「우리美軍은 朝鮮의自主獨立을實現시키고저進駐한것이다 時期의遲速은 여러분의努力如何에달렷다」三八度以北의蘇聯軍도 朝鮮의解放을爲하야 進駐한것이라고數次布告를發하엿다 『當面』의三八度障壁問題와 三八度以南의美軍政實施問題는嚴然한現實의事實이다. 이問題에對하야 美蘇間에 交涉進行中인데 不遠撤廢되리라는報道까지 傳해온다 그리고 美軍政當局에서는 朝鮮의統一國家完成을實現시키고자 李承晩博士, 金九主席以下臨時政府要人을 還國케하엿다 確實히 李博士의還國을 契機로하야 亂立狀態에잇든 國內各政黨이 一旦統合하야 獨立促成中央協議會를結成한것은 一步의前進이오 建國의第一階段이라고 아니할수업다

金九主席은今後 어떠한 活動을 할는지 三千萬民衆은 期待하는바 적지안타 이와갓치 우리는 안으로各派統一戰線을結成하는 同時에 美軍政當局의施策에 一致協力하야 하로라도 빨리 自主獨立國家建設을하지안흐면 안된다 이것은 다시論議할必要도업시 三千萬民族이 다갓치 熱望하는바로서 民族解放의國內統一戰線을結成하는同時에 三千里疆土에 他人의손을빌것업시 우리손으로 建設하여야한다는것은 無條件으로肯定할줄안다 만일에國內의各政黨對立이 錯綜하야 派爭을爲한派爭 或은小吏的自慢에서울어난固執이잇다면 우리가待望하는自主獨立은 實로前途가暗澹하다 우리가 스스로政治의能力을 發揮하며 行政의實權을掌握하지안흐면 獨立國家로서의實力을涵養할수업슬뿐아니라 單一國家로서의國際生活에 參加할수도업는것이다

여기에우리는 美軍政當局의 一般的施策에積極的協力하며 우리손으로 建國의大業에 邁進하지안흐면 안된다는것은 두말할것도업는것이다 侵略主義「팟쇼」를破碎한聯合軍은 世界弱少民族을 解放시키여 民族自決의 原則에依하야 民族單位의 自主獨立國家建設을 期한는것이 第二次世界大戰의目的이요 理想이엇다 이 『理想』과目的을達成시키기爲하야 聯合軍側에서 積極協力하야 그施策에成果잇도록 率先努力하지안흐면안된다 勿論 그施策自體가 朝鮮의自主獨立國家建設을爲하야 適當한가안흔가 하는것도 우리는嚴重警戒하여야할 問題이겟지만 적어도 그것이우리의 建設大業을爲하야 妥當한것이라면 一致協力하여야한다

八·一五日以後에國內에는各樣各色으로各層各派는 獨立狀態에잇는데 벌서四個月에 마지하게되는今日에도 依然舊態를固執하는傾向이潛在하고잇다 이것은여러가지事由도잇겟지만 過誤를反省하지못하는데 重大原因이잇는줄안다 過去의過誤를 淸算하며反省하야自己批判이잇서야만 發展이잇고創造가잇는것이다 어느民族이나國家를勿論하고 獨善的이요 無批判의民族은 運命的으로滅亡을約束하는것으다 또한상反省하며自己批判하는民族은 一時的失敗가잇슬지언정 結局은悠久히發展하며 開拓되는것이라는것은 歷史가實證하는事實이다 우리는各黨各派가 一致協力하야 獨立國家建設에挺身하자! 여기에는過去를采配할것업시 過誤가잇다면 反省하야淸算하고 建設에 邁進하면 ㄷ는곳 發展의길을前進하는것이다

本報重刊과各方面祝辭

長壽를祝福

뉴ー맨公報課長

이번東亞日報續刊에當하야 나는貴紙가아로 기리 長壽하여 朝鮮國家에 對한重大한責任을成就함에 잇서서예ㅅ날가저떤그高尙한理想下에邁進하시기를바라고前途를祝福하는바이다

本社來訪激勵

「뉴ー맨」公報課長은一日上午十時突然本社로차저와 新聞制作施設을두루살피고『잉크』내음새도새로운本報重刊第一號를보다음同人一同에『朝鮮의言論界를爲하야만報道히奮鬪해주기바란다』하엿다

善良한忠告者되라

韓民黨宋鎭禹氏

이땅에 瑞氣가가득하고 生脈이뛰는지라 이제나 이제나하고 渴望하든 東亞日報는 드디어蘇生하엿다

하자면 우리의監視와 鞭言을 完全히封鎖하고서만 可能하엿기때문에 그와갓튼 殘惡을한것이다 더욱이 그最後의瞬間에잇어서 敵이取한 가진陰謀와殘은생각만하여도毛骨이悚然하다 이제는그敵이 逐出되는 이山河에 自由가復歸되여 東亞日報는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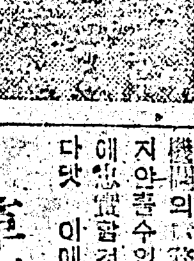
革創부터民主主義

民世 安在鴻氏

東亞日報가 續刊되는것은 意義기픈일이다 朝鮮民族의運命이 窮極한때빠질때 東亞日報가 그에게따라죽엇으니 이제民族解放이 約束되고 自主獨立國家의 完成이 待望되는途程에서 東亞日報가 다시살어나오는것은 當然한일이오 또매우기븐일이다 오늘날約束된民族解放이 半身不隨的안즘뱅이의不幸한狀態에 빠저잇고 民主主義建國事業도 依然促急한待望속에 助勤만하고잇

安在鴻

三千萬은 뉘서라感激하지안코 기버하지안흐리오마는 지난二十年동안 東亞日報와 苦樂를가치해오든 나로서는 그만가한層더深切함을 느끼지안을수업다 東亞日報는 우리의正月으로서 誕生하엿고 우리



의利器로서싸워왓다 그거러운 고비고비의길을 보다가 鐵血로 물드려잇고 苦心외호흡이엇다 그때은에 三千萬은 더욱아끼고 더욱지켯건만 畢竟 敵의僞政의 犧牲이되고마럿다 世界의自由民에게 叛旗를들게된敵은 이땅이百姓을 斷末魔的으로 暴壓하고蹂躪하려하엿고 그러

우리압패 나오게되이니 過去에 우리의解放을爲하야 바치든 心血을이제는 우리의建設事業에 實際하지안흐면 아니되리라고 밋는바이다 內外情勢가 複雜混亂하는現下時局에잇어서 言論機關의任務는 實로重大하지안흘수업는것이니 報道에忠實함것은勿論이어니와 다맛 이에만그침것이아니다民衆의善良한忠告者되고 賢明한指導者가되어서 邪說을剔抉하고 正論을扶掖하야 民心의歸趨를明日正確히示唆하무로써 國家建設에 寄與하는바가잇어야할것이다 이제 東亞日報가再出發함에잇서서弊과誠을가지고使命을完遂하도록 祝願하며 付託하며 그前途를 祝하는바이다

各界로한信望, 完全한自主独立

傳統을堅持하라

本報廢刊當時社長 白寬洙氏

東亞日報의歷史는 日本帝國主義와의鬪爭史이다 發行二十年間 그惡政의 彈壓下에押收, 特刊, 乃至停刊等여러가지 犧牲의길을 밟바온 朝鮮民族의 唯一의表現機關으로서 特히一九四〇年度 八月十日附로 廢刊運命을 當하게되엇다 그當時社長으로 最後責任者인 나로서는 續刊되는 今日에際하야實로悲喜가交極하다

그當時의情況을 一一히 이야기할수업스나 營業局經理部를 爲始하야 幹部大部分이拘束되어 强制로 廢刊屆를提出하게되엇다 强弱不同으로 우리들은結局 新聞을 掠奪當햇다 그러나 끗까지鬪爭하야 廢刊屆의捺印을 斷然 拒否하고 우리들은 玉碎主義로나갓다 一切의威脅과 妥協을 排擊하고 最後까지 反抗하여다는것이 東亞日報의傳統이요 使命이니만큼 차라리 玉碎하자는것이 그當時의 東亞日報의 態度이엇다

解放된 오늘에 當하야 다시 東亞日報가 續刊된다는것은 實로 感慨無量하며 正道는 반드시 勝利한다는것을 느끼게한다 東亞日報가 過去에 밟바온바와가치 今後에도 眞正한 民衆의機關으로서 天下의公器가되어야한다

白寬洙

卽 不偏하고 不黨한立地에서 나아가야한다 三千萬 우리民族의 輿論이요 正路의指針으로서 育成해나가기를 衷心으로바라다 特히 建國初인만콤 國內情勢는 極히 多事多端하다 따라서 言論機關으로서의 責任이 重且大하니東亞日報의 傳統과使命을 發揮식키는同時에 建國大業에 만흔貢獻잇기를 바라는바이다.

停刊反復이前後四次

幹部拘禁코廢刊

本報發刊까지의經路

僞政의祭物이 되엇든本報가 이제다시 復活하기에 이르기까지 지난八月十五日解放以後 復刊準備를하여온 우리同人一同은 이제廢刊當時를 다시금想起치안흘수업습니다 지금으로부터 六年前八月十日 紙齡이미二十歲로 成長한 東亞日報는 讀者여러분의 記憶에도 새로운所謂 日章旗抹殺事件으로 一九三六年八月二十七日 總督으로新任한 南次郞이 登檀劈頭에 本報에 停刊處分을 내린後 日軍의華北侵入事件의 進展됨에따라 아조廢刊을시킬意思로 一九四〇年正初以來그의 部下를로 하여금當時本社顧問 宋鎭禹氏와 社長白寬洙氏를 여러차례만나자하여 自進廢刊을 强要하엿던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無謀한 强迫임으로 斷然코 拒絶하여왓섯습니다 그리고 三月中旬에 宋鎭禹氏가東京가서 本報에對한 南次郞非行을 彈劾하야 이것이 拓務東京議會에까지 問題가되엇기때문에 總督府에서는 香態度을 느치워廢刊說은 一時잠잠하엿섯스나 그들은 六月말에드러다시금 旣定方針이니 이以上더 버티지말고速히自進廢刊하자고 抑壓하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한개의口實을잡게되엇으니 그것은 本社에서 處分한破紙를 사간者가經濟犯으로警察에 取調를밧게된것이엇습니다 그들은이것을 口實삼아 營業局長 林正燁 以下多數營業局社員을 京畿道警察部에留置하고 畢境七月初에는 宋鎭禹氏白社長을 京畿道에拘禁하고서 온갓手段과脅迫으로 自進廢刊을强要하엿습니다 그러나 내손으로어찌개곳할 내몸

本報는 創刊當年(一九二一年) 九月二十五日 祭祀問題를再編함이란社說로서 停刊處分을바다 百八日만에 解停이되엇고 또一九二六年三月五日에在모스코바國際農民組合本部代表로부터온祝賀電文을 揭載하야 二回째의 無期停刊을 當하엿스니이때는 따로主筆兼編輯局長 宋鎭禹氏와 編輯兼發行人 金鐵中氏가 懲役의刑까지當하엿섯습니다 그뒤一九三〇年創刊十周年을 마지하야四月一日以降『十周年記念號를 通하야內外國士로부터朝鮮에보내는書』라는題下에 寄書가掲載되엇는데 米國의『비라드』氏로부터보내온『朝鮮의現狀下에貴報의使命은重大하다』는글이말성이되어第三回째의無期停刊의處分을當하엿고 一九三六年八月二十七日에는 日章旗抹消事件으로 네번째發行을停止當하야 當時社會部長인 故玄鎭健氏以下十名의同人이月餘의營倉苦痛을當하고 社員全部가年餘의고생을하다가 畢竟은宋社長 編輯局長以下高級幹部의引責退職의强要까지當하엿섯습니다 이제모리켜回想하면 一場의惡夢입니다 우리는 이것을貴重한 한試鍊으로 알고 本報의압길에큰힘으로삼아 오즉祖國再建의大業을爲하여일하며 마튼任務에充實히突進하려합니다

鑛業界再出發

朝鮮의九割六分이나 차지하고잇는 日本所有鑛山을 適當한管理와또한 將來基礎鑛業인 鑛業界에잇어 再組成을企圖할 現實에잇어서 그間軍政當局과 交涉中이든바 지난二十七日午後一時부터 서울市南米倉町 朝鮮鑛業會館에서 朝鮮鑛業會理事會와 朝鮮鑛業中央管理委員會準備委員會를 開催하고 委員 李鍾萬氏司會에 朝鮮鑛業中央管理委員會 委員招請을 오는八日午前十時에 同會議室에서 開催하기로 하엿다

四政黨 政見發表放送

第一回 朝鮮共産黨

放送에依한 主要政黨의政見發表는 軍政廳에서 추첨을하야 順次가決定되어 第一回를 朝鮮共産黨代表가 三十日夜 午後七時二十分못터 서울中央放送局의『마이크』을通하여 放送을하엿는데 그要旨는 다음과갓다

(前略) 우리黨은勞働者農民都市小市民과『인테리게이치아』及一般勤勞者大衆의利益을代表한政黨임니다 日本帝國主義統治의白色테로—미테서 우리는 民族의獨立과土地問題의解決를爲하야 勤勞大衆의生活改善과 言論集會의自由를爲한反帝反封建的民族解放鬪爭을 不絶히展開하엿는데 그것은朝鮮에 잇어서 民主主義的自由와發展을爲한鬪爭입니다 (中略)

우리가 現段階에잇어서 要求하는 民主主義는 具體的으로 무엇을意味하는가 그것은 朝鮮民族의完全獨立 土地改革 言論集會結社信仰의自由 男女同等의選擧 被選擧權의確保 八時間勞働制實施 國民皆勞에依한民族生活安定 特히勤勞大衆生活의急進的向上等에基本的問題를解決한 具體的內容을가진 實質的民主主義의實現에잇음니다 (中略)

우리공산당에서는

一、建國의理想은 進步民主主義原則을綱領으로할것

二、民族의統一에는 親日와民族反逆者를除外할것

三、民族統一戰線結成은 內海外의몃個政黨의集로될것이안이요 그外大衆的組織인全國勞働合評議會、全國靑年總盟全國婦女同盟、天道等各民主主義團體도이參加해야합니다

四、民主主義統一政權을立해야하는데 이것을記第三項에서 말한 民統一戰線이結成되여衆的인基礎우에서樹立여야합니다

五、各政黨이政論政爭을하는것은 主義主張이異함으로當然한일임니 그手段方法은 國民的論과大衆의判斷에呼訴는 大衆的政治運動의을許하나가야할것시요 各政黨團體에서는 暴또는個人的테로分子의壓的殺戮行動은 一切擊하고 이것을策動하謀略分子를反民族的分子로規定하고 그것掃淸할것을神盟하게盟할것

六、民族主義各政黨은立된現象을淸算하고義綱領에同一할것갓흐單一黨으로하기를바란

(下略)

새辯護士

대「원적」김용무(金用茂)씨와「래이란」「루장」「레이라」를으로 군정청에서는 미국하원(下院)의원「「타크」씨를조선변호사회원에 임명하고 동시에 옴세사람에도 변호사합격을선서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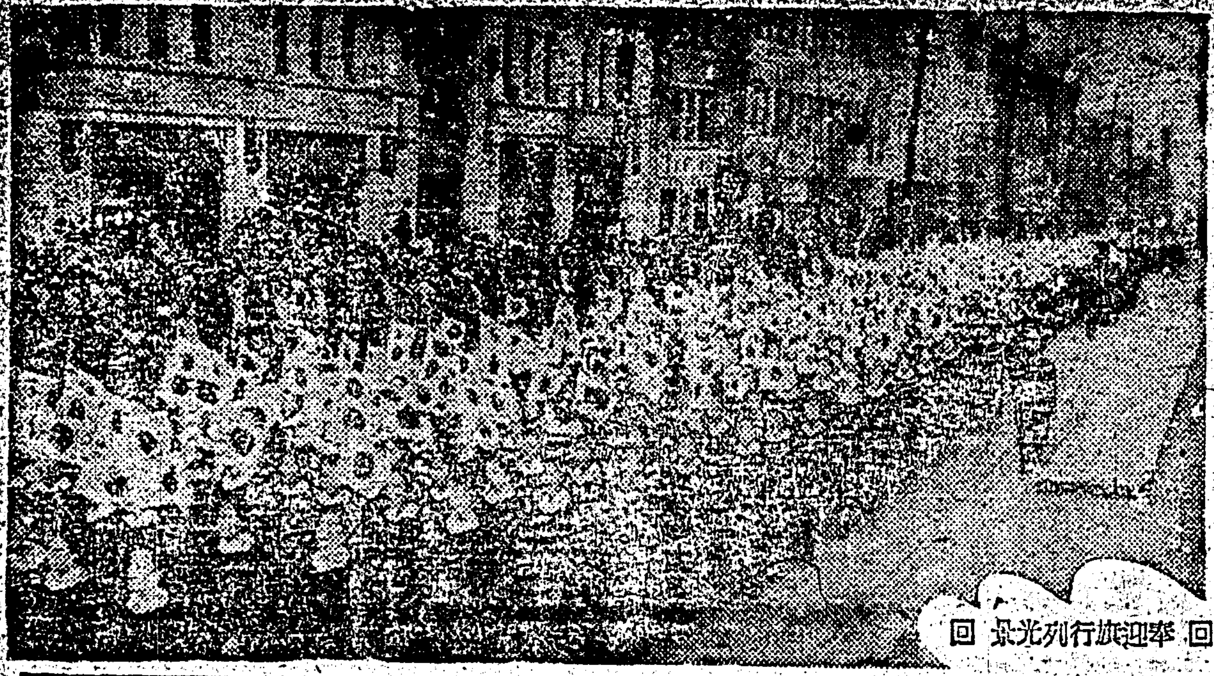
△金瓚用氏△金韓氏△相根氏

感激의旗行列壯觀

長安의구비구비 奉迎의長蛇陣

沿途에는人波重重

十二월一일 서울시거리는 감격과흥분에 넘친위대한성전(聖典)을 마지하엿다 이날을 축하하는듯첫눈이 내리는 가운대 하오한시 서울운동장에서 열린임시정부환영회는 성대한식을마치고 二시十五분경三十여년만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선두로 국군학생의 우렁찬 악대를선두로국군 각학교 각남녀중등전문 각녀자단체 각관공서 각정회 대표등 十수만명의 봉영기행렬이 엄숙하고 우렁차게 거행되엿다 서울운동장을떠난 군중은동대문압흘지나 종로를 거쳐 안국정네거리에 이르다 안국정네거리 조선생명보험회사二층에는 남쪽창을 향하야 김구(金九)주석을중앙에모시고 바른편에는 리승만(李承晩)박사 임시정부국무위원이시영(李始榮)씨 그리고왼편에는 부주석김규식(金奎植)씨동선전부장 엄항섭(嚴恒燮)씨 동문화부장김상덕(金尙德)씨 등 여러요인이 태극기를 각각손에들고 이행렬을 다보고잇다 각학열대가 조선생명빌딩압흘 지날때마다 태극기를 노피흔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주석 국부 리승만박사 만세』를 힘차게 봉창한다 검은양복에 검은안경을쓴 김구주석은 굿게 입을담으린채 때때로 머리를수그리어 정중히답례를하시는듯 그리고 만면에 미소를띄운 리승만박사는 쉴사이업시 태극기를 흔들어 감격에넘치는 답례를 한다 이장엄하고 호화로운 이자리 이순간이야말로 우리임시정부가 해외풍상二十七년을 피로싸워 이겨나온거룩하고 성스러운새로운역사의기록이다 이리하야 행렬대는 차례로봉영인사를마치고 군정청압흘 지나 남대문에이르러 각각해산하얏다



回 奉迎旗行列光景 回

銀行、金融機關 四時까지執務

三十八度이남에잇는 각은행 기타금융기관은 이달 一일부터매일오전十시에 사무를시작하야 오후四시까지집무하고 토요일은 정오까지이다

二千同胞滿載 米船의第一船、群山歸還

미국주둔군은 멀리일본에서 귀국하지못하고 고생하는 우리동포들을위하야 상륙용주정(舟艇)을 이용케 하기로되엿는데 제一선편이 三천명의동포를실고 지난三十일 군산항구에 의기양양히 입항하엿다 이에대하야 『엔다스』외무과장은 아프로도 동포수송에 이수송선을 이용하게할터로 조선사람귀국에 큰도움이되리라고 말하엿다

瑞雪

첫눈이오다 一일오후 때마침태극기물결과 만세소래진동하는 서울거리에 송송이 나리는 흰눈송이는 분명히오늘의 성사를 추복하며 오는해의 풍년을예약하는 하날의 폐백이다 올겨울잡어들어첫눈인데 예년에비해 보름전후느진심이나 대설(大雪)이五、六일압헤닥처잇스니 정히때를알어나린 복눈이요 기뿐눈이다 더구나 서울에도오고 시골에도 경북이북의전조선에겁처골고루 나리고 기온은며칠이래로치워저서영하八도를 육박케되니 치위도 이제는한깔큼에 노힌지라 겨울날준비는다되엿는가

尹義士遺骨은 臨政서奉還할터

十三년전 상해(上海)신공원에서 왜장 백천(白川)대장을 암살하야 우리민족의위명을 날린 윤봉길(尹奉吉)의 고혼은멀리 일본석천현금택지방(石川縣金澤地方)에서 잠들고 잇는데 고향 예산(禮山)에서는、이번에 그유골을 봉환하고저위원를조직하고 대표 김관룡(金寬龍)씨가 방금서울에와서 연락중이다 그런데 이런사업은 이지방에서 할일이아니라 당연히 전국적으로 할일임으로 비석、동상건립 유골 봉환등에대한 지방위원회는 해소하고 다만 정부의조사에만 적극적으로협력하여 달라는임시정부의의견에동의하여 동위원회는해소하고 정부의지시에딸으기로하엿다 그리고 윤의사의유족은 방금 예산군 덕산면(德山面)에엄친과 부인맛아들세분이생존하여잇다

消防學校를創設 美製消防車卅臺도近着

우리수도의 방화진을철벽가티하여 화재업는서울건설을꾀하고저 경기도경찰부안에는 이번 도경찰부 소방과(消防課)를신설하고 동과고문에는 소방기술에능통한 『에드』중위 과장에는김정배(金晶培)씨가 각각임명되엿다 새로설치된소방과 관할내에는 현재경성、용산、성동 인천四개소의 소방서가잇는데 다시금년내로개경시(開城市)에도 소방서를 하나세우기로되엿다 그리고 명년四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인소방학교를 개설하야 소방수를대량으로양성할계획을세우고잇스며 마군정당국이 진작부터 미본국에주문중에잇는 『깨소린』소방차 三十대도근일중에도착되여 스마트한 자태를서울거리에나타내일터이다

群山軍倉庫大爆發 三百廿餘名死傷失踪

지난三十일전북군산(群山)에서는 산적된일본군수품이 돌연폭발하야三백二十五명의 행방불명과 사상자를내엿다 그중에는 二十六명의 미국군인도석겨잇는데 二명의 사망자를내엿고 그중一명은대위라한다 원인은 방금조사중안데 이에대하야 모미군장교는 이런폭발은 태평양전쟁이래최대의폭발이라고한다 그리고 이에압서 지난十月九일에도 그부근에서이번사건과갓흔 사태가발생하엿섯는데 三十만른이되는 적재물이 손실되엿는것으로 군정당국은 이기괴한 화재의원인을 엄중히탐사중이다

斷末魔行狀記 (二)

兵卒들은米穀을燒却 高官들은綿布로謀利

착취 약탈 살인 소각― 八월十五일을전후하야 일인의야만적인행위는 뒤에뒤흘이어 폭로되고잇다 그중에도 일본군인들의 최후발악이야말로 우리의 분노를 더욱도둔다 그들은 소위 군용(軍用)으로서 약탈해두엇든 만흔 식량과의복이 가득한창고에 폭탄을쟁여 불살러버린사실을 우리는영구히 잊질수업다 약에도쓸수업슬만금 귀한설탕 밀가루등 만흔물건을추력으로실러내다가 가마니채 한강(漢江)물에던저 고기떼에 적선을한 소행이야말로 천인공노할 사실이며 그들부하중에는 소각 또는 투강하라는상관의 명령을 역이고 창고문을열어제끼고 만흔식량 군화 군복을 야미꾼에게넘겨 굼주린우리동포의 빼저리는돈을착취하야 사복을채우기에바뻣다 이러한 흉행은 군인만이안이다 소위 범죄취조의 총본영인 전경기도경찰부장이 모리배의 괴수엿다는사실도 속속신문에 폭로되고잇지안혼가 강(岡)전경기도경찰부장은 부하수명과 결박탁하야 동양방직(東洋紡織)으로부터 四만여통의면포를이재민 구제금거출의 미명아래자유처분하야十三만원이라는 돈을착취하고 인천항(仁川港)으로부터밀항하려다가 출발직전 부뜰리어 철창의신세가되엿다 여기에 또하나 놀날사실로 헌병대에서는 방대한금액의화폐를 위조하야 몰가를폭등시켯든것이니 그들덕분에 물가는 나날이올라 우리들은 협위를받고잇지 안흔가

秋收三分一 그以上은밧지맙시다

군정청에서는 금년도소작료에대하야 수확물의三분지一 이내로제정하엿는데 지세운반수수료등 못제에잇어명확하지못하야 지주대소작인의 관계가매우미묘한대립을보이어 그관계가구구하게되어잇다 이에농상국에서는 지난十월五일발표 지령제九호에 부연하여 다음과갓치 언명하고 동시에 소작계약은등기소가 설립되는대로 六십일안으로신청하기를 바라고잇다 지주에대한소작료는 농작물이나 현금으로지불하는것은 변경이업스나 지주가 농작물의三분지一이상은바들권리가업다 이박게지세 수수료 수리(水利)비용 소독약품대 비료 종자 농구개선비 수선비 보장비 기타비용에 관한계약에는 종전대로실시한다 그리고 등기소가 설비될특수한지방에서는등기소설립된지 六十일내로 농지계약을신청하여야한다

詳明高女校昇格

시내사직정 상명실천여학교는 一九四〇年 교육가 배상명(裵祥明)여사의손으로 설립되여 여자중등교육에만히힘써오든바 지난十一월二十九일부로 四년인 상명제고등여학교로 승격되여 압흐로 더우리여자교육에 기대를갓게되엿다

… 비친 우리의 …

自由를願하는民族 탐임誌朝鮮特派員記

鍾路에서 우리들은傳說을들엇다 十회되는 巨鍾의소리는 어린아이울음소리갓다한다 그까닭은 一三九六年에 그鍾을만들때에쓴材料中에 어린아이도 들어갓기때문에 … 되더날 이鍾은 크게 또 오래도록울엇다 日本人의 무질러부친 似而非近代的面貌의 都市의 東大門박에 競馬場이 잇다는것을알엇다 그러나 日人이 말을다 몰아가고 只今은 寂寞하야 門이다 처잇다。南大門이라고하는데잇는 停車場은 罹災民과 … 으로 혼복거리고 北行하는사람은하나도업다。敗名의露西亞連絡 將校가 서울에와잇다。 米國軍人들은 大概집에 便紙를쓸때 宮殿은 南向이고 城壁은 자취업고 大監은 양반이고 第一조흔料理는 神仙爐라고便한다 主婦들은 쉴새업시 힌옷을빨고 시골사람들市에는 아직도 갓을쓰고다니는사람이잇다 그것은 結婚한사람의 傳統的表徵이다、 朝鮮사람은 대단히 友情가 두텁다 늘상웃고 상냥하고 아이들은 米軍自動車만 지나가면 『할로 할로』하고 따라온다 참 흥흥한곳이다 果然 解放되엿다 三十五年間 桎梏에서 버서저나와 朝鮮사람은 日本이 亡하는것을보고 기버하엿다 그러나 지난週日 두援助國의 도마질에獨立은 아직도 창창하다는것을 알엇다 南部朝鮮에서 이러하다고할것은『뉴쓰』다 小學校가 문을 열엇다 知識의門이 閉鎖된지가 몃해가되는지 모른다 米軍은 印刷所로 달려가서 敎科書를 만들기가 바뿌다 宗敎의 自由가 또한 復活 되어서禮拜堂에서는 主日마다 鍾이운다 며칠前 盧神父는 解放感謝미사를올렷다 어떤部類의朝鮮人은 混沌을참라리 歡迎하엿슬런지모른다 그네는 獨立이 어찌어서되지안는가하고 焦燥하고잇다 그들은 米軍이 어째서 이모양으로 느린가하고 답답해한다 그러나 이現象은 解決되어가고잇다 朝鮮人은 그 미워하든日人警官을거진다 모라내고 그자리에 들어갓고 개中에남아잇는 日人은 나다나지안는다 (탐임誌十月號에서)

그날그날

(曆)十二月二日、陰十月二十八日(日曜日)

(氣象豫報)△豫報 京仁地方은 最後 晴이다 △溫度 一日 最低 零下 八、一度

集會

中央基督靑年會舘에서 첫日曜講話가 시작된다▲新民朝鮮文化聯盟主催 全國大學專門蹴球選手權大會(第二日)午前十時부터 서울運動場에서開催

라디오

晝 時報音樂 午後〇、三〇뉴ー스 同一、〇〇音樂 同一、三〇週間情報

夜 五、〇〇時報뉴ー스

오늘밤放送順序▲五、三〇音樂▲六、三〇어린이時間▲六、四五音樂▲七、〇〇時報뉴ー스▲七、二〇音樂▲七、三〇輕音樂서울音樂輕音部▲八、〇〇唱劇調金逸仙외 朴金德子▲八、三〇野談異神根▲九、〇〇時報뉴ー스及知事項日氣豫報다음날放送順序▲九、三〇日語뉴ー스▲九、四五音樂

휴지통

▲더―은비엿다 가득차고 찻다가비니 비엿다찻다―영허의 원리▲더위도 한철 치위도한철―철철이 뒤바귀니 소장(消長)이 또한이러하다▲이땅에 꼿피는봄이와도 봄까지 남의봄인냥 봄인줄을모르고산때가잇엇거니▲오날은 눈나리는겨울이건만 칩기는커녕 혈관은왕성히뛰놀고 원기는백배▲남녀노소 거리에넘치는사람의울결― 손마다휘두르는태극기、천지를뒤흔드는 만세소래―▲겁는자보무당당 섯는자 기식이씩씩!▲이어인감격이며 이어인기쁨이랴 망차진기불성(焚)차진다행밥 차질감격―것기『족기불너도 나도 눈물이나도록 기뻐기만하구나▲우러러선련선배께절하고 이어서이웃사촌인 연합국병사에 감사의뜻을 드림진저!

祝重刊

[redacted]鮮製麻紡績株式會社

社長 丁奎成

文化·學藝·家庭

解放朝鮮의 國文整理와 普及

丁來東

現下朝鮮에잇서 가장時急한問題는 國文의整理와 文盲全無運動이다 只今까지 朝鮮의文化는 그大部分이 中國文化에 依存하야왓다고하여도 過言이아닐것이다 唯獨한 朝鮮의用語는 漢文을 離脫할수가 全然이업스며 三十餘年間 意識的으로

漢字 를少用하려고 努力한結果 小說方面이나 新聞三面에서는 거위成功의域에 到達하엿스나 其他政治 經濟 科學用語에 至하여는 그影響이 微微하다고보지안흘수업다 그는 漢字를 쓰지안코는 到底히 意思表現을할수가업스며 一言一字로

廣汎 한內容을 包含하게하는데에는 漢字를除하고는 現下智識人의程度로 他道가 업는까닭이다 그만큼 漢字는 우리의腦髓에 뿌리기피 백혀잇스며 便宜를 느끼는바이다 더욱 漢字의根源地인 中國에잇서서도 漢字制限運動, 羅馬字專用運動 注音字母專用運動等이 잇스나

效果 는 顯著히 나타나지못하며 漢字制限選動만이 어느程度로成功하고잇는中이다。漢字大本源인 中國에잇서서도 漢字制限云云하게된데는 그理由가 充分히잇다。第一로 離解한 文字이며 第二로 時日의浪費가 만흐며 第三으로漢文이

意思 表現의工具로서 不適當한點等을 들수가잇다。

朝鮮에는 獨特한表現文字가잇는以上 當然히 漢字全廢運動이 잇서야할것은 더말할것도업스나 現下의 過程에잇서 어느程度로漢字全廢運動을 進行할것인가에 疑問하여야할것이다。現今에 時急히漢字를 全廢한다면

文化 發展上 大支障이 잇슬것이요 到底히不可能할것이다。

그럼으로第一順序로는漢字를制限하야使用할方途를講究하며第二는小學校와中學校에잇서漢字及漢文中國語敎授問題로도라갈것이다 漢字制限은過去에도

相當 히實行하야왓스나小學校中學校의漢字漢文中國語敎授問題는現下軍政廳敎育委員會에서와學術院에서多少論議된다는말은듯엇스나그成案은아즉確實히들을수가업슴으로可否를論議할수는업다。그러나現今이나

今後 에잇서漢字敎授는할수잇지만은漢文을敎授하는것은勞多功少가될것이요차라리中國語를敎授하야現在中國에使用하는白話文을歸得하여가지고淸明宋唐으로漸漸中古古代文으로學習을세우는것이나흘것이다 그러는것이中國文化를吸收하는데도

必要 할것이며 漢文學得의順序도 될것이다 그러므로 朝鮮國文에잇서 問題되는것은 漢字問題요 結局 漢文問題는 안니다

普及 國文普及은 漢字使用制限으로因하야 自然 朝鮮國語의 語彙가 漢字에代하야 使用되므로 普及 될것이며 文學上語彙도 豐富하여질것이며 科學上術語도 漸漸國文化될것이다

文盲退治는 義務敎育實施로 비로소 可能할것이며 그前에는 講習會 敎材宣傳으로 어느程度의効果가 잇슬것이다

『어린이신문』 고려문화사서발행

새나라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잇는 양식을 이바지하고저 벌서부터 시내래평동二정목一번지 고려문화사(高麗文化社)에서는『어린이신문』발행을 준비중이던바 드디어 지단一일로서 창간호를 발간하엿다 내용은 곡보노래와 만화를 비롯하야『소년조선사』『국어공부』등 모두 전문가들의 책임집필인만콤 각소학교에서는 부독본으로도 쓰게되여 각방면으로부터 주의를끌고잇다 편집동인은 林炳哲 金永壽 尹石重 鄭玄雄 朴啓周 蔡廷根등 제씨다

月刊綜合雜誌 『革命』創刊

月刊綜合雜誌『革命』創刊 八、一五出獄革命同志會文化部에서는 그간各方面으로猛活動하든바 아지음革命同志社를創設하야압흐로月刊雜誌『革命』을出刊하얏는데 創刊號는 新年號부터發刊할豫定이라한다 그리고압흐로는諸方面의圖書出版과 文化事業에全力을다하야獻身하겟다한다

▲委員 金鏊、崔滈、成百愚、金源柱、林炳哲、金圭冕、李鍾漢

社屋 서울市茶屋町一二四(2)六三一

大春香傳公演

國樂院創立紀念으로

創設以來 實踐內容과陣容을强化中에잇든 國樂院에서는 今般 그첫記念公演으로 雅樂唱樂, 舞踊, 民謠, 俗曲을綜合한『大春香傳』을構案드되어오는十二月中旬에公開코저方今全員三百餘名이猛練習中이라고하는바豪華스런春香傳을보게된것을一般은크게期待하며 그스람을紹介하면 아래와갓다

原案 國樂院文化局、脚色 金無何、演出 安鍾和、李曙鄕、考證 國樂院硏究部、裝置 元雨田 金墨蓄、雅樂指導 張寅植、唱樂指導 李東伯、朴秉寶 舞踊指導 李珠煥、趙相鮮

애기와부르는노래

異河潤

아가
오늘아침엔 네가 너무도 부지런하다
네 얼골엔 유달니 화색이 도누나

이아갑
네 우슴은 그저 깨끗만 하구나
나는 네 얼골을 보며 눈물이 어린다

아가
우러라 우러도 보람잇는 우름
즐나라 즐나도 보람잇는 즐늠

통 서름은 가신지라
울어도 조타 울때로 울어라
우서도 조타 우슬때로 우서라

아가
나는 네뺨을 꼬집고십다
너를 품에 안꼬 내뺨을 부비며
우리—맑근 공기를 양껏 마시자

풍풍 깃분 눈물이 흐른다
중중 깃분 눈물을 흘닌다
이품속에선 네형이 애국가를 부르고
벌서 절믄이들은 일터로 달려가고

家庭과政治

귀천관념을버리자

조선이 해방이 되니까 소양이 부족한녀자는 곳 녀자가 남자하는일을하고 가정은 도라다보지안는것과가리 생각하는 경향이 업지 안타 남녀 평등이고 녀자참정권운동을 연결하야。생각하면서 과거의남자의하는일은 고귀한일이요 녀자의하는일은·천한일이라고만 녀기는경향이 업지안타 그러나 인간사회의 하는일은 본래 귀천이 잇는것은 업다 시골에서 전답을 경작하는 일이나 정부 관청 충장이나 국무장관이 하는일이 일의 분야만 달를 뿐이요 그일자체에 귀천이 잇는 것은 아니다 녀자가 가정에서 조석의식사를 준비하는것이나 남자가 회사나 은행이나 학교에서 하는일과는 그일의방면만 다를뿐이요 그일의 칭하가 잇는것은 아니다 그런데 과거의인습은 농업과정치는 본격적으로 귀천이 잇는것가치 우리의 뇌수에 백혀잇고 부녀자가 가정 에서 하는 일은 가간소사요 남자가 정게에서 하는일은 인간최고의사업가치 생각하게 됨이 이저저잇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수업는 인습적 차오라고하지안을수업다 우리는해방후조선에 잇서 이관념을 시정하지안흐면 안된다。그런데 상당히 지식이 잇는 녀자도 이점은 차오를 법하고잇서 녀자로서 정치운동에 가담하는것은 자기가 출세하고 위대하게되는것으로만 생각하고 가정에서 어린애를 길르고 밥을 짓는 것은 식모 나 천하사람이 하는것으로만 생각하는경향이잇다。심지어 근일에는 지식녀자로서 행장이나하고 정객이나 방문하고 정론을토론하는일은 녀자로서 착고의영예로 알고거만하여지며 가정에서 일하는녀자를천시하는 녀자까지 잇게되엿다。이것은국가로서도큰문제일뿐아니라 가정부녀자로서 수치로생각할점이라고 하지안을수업다 금후 부녀자의운동방향은 정치 운동 도 조흐나 부녀자의 사회에대한 관념을 시정하여서 그생각부터 개조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

부녀자도 그소질에 따라 정치운동을 하는이도 잇슬것이요 교원 작가 사무원 기타여러가지 직업에도 그소질에 따라 각각종사하는것이 조흐나 일에 귀천이나 고저를 두고 생각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일부부녀자방면에서 신생활 운동을 제창 하려고 준비한다는 소식은 들엇거니와 금후 과거의인습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향 으로 매진하며 과거의미덕을 보존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는바이다

國民大會의 發端

國民大會準備會副委員長 金俊淵

一切의國政은 國民의總意로!

八月十五日午前十時頃이엇다 나는昌德宮警察署압헤서呂運亨氏를만낫다。宋鎭禹氏가나오느냐고물엇다 宋鎭禹氏는나오지안케되고 金性洙氏에게는同議할機會가업섯다고對答하엿다。그러면그대는어떠냐고하기에 나도參加할意思가업다는것을말하엿다。呂運亨氏는그러면나혼자나가겟다고말하엿다。그래서共產革命으로 一路邁進하겟다고말하엿다

◇八月 九日에 蘇聯이 日本에對하야 戰爭을宣言하고 活動을 開始하야 滿洲로朝鮮으로 進軍하게되니 日本政府는 最後의 挽回源까지 喪失하고 말엇던것이다 原子爆彈에 依하야 奮鬥失措한 日本政府는 또다시 蘇聯의進出을보게됨에 千萬丈의 구렁으로굴러떠러지버렷다 벌서 國民을 속여서 들고나갈수는 到底히 업게되엿던것이다 이와가치되여 敵軍의侵入을보면서도 對抗的宣戰布告를 行하지 못하고 降伏을 決定하고 다못그節次에關하야 論議하고잇을뿐이엇다

◇朝鮮 總督府 에서는 中央政府의 이態度를살피고 對策을講究하게되어 十日에는 警務局保安課長이 主動이되어 진고게某處에서 朝鮮軍두參謀와 原田警務局事務官等立會下에 宋鎭禹氏를 만나서行政委員會의組織을 依託하엿스나 宋氏는 拒絶하고 十一日 十二日兩日에도 同樣의交涉이잇고 十三日에는 生田京畿道知事와 同警察部長이만나서 交涉하엿으나 亦是拒絶하고 十四日에는나도 生田知事와岡警察部長을 만낫스나 同一한結果가 되고말엇다 그러는동안에 呂運亨氏의게도 交涉이잇엇던모양이다 그래서

◇某友 가中間에서서 내에게宋金兩氏에게 呂氏와 合作하도록 勸誘하여달라고 依賴하엿던것이다 나는 十五日午前七時半에 呂氏가 政務總監을 만나러갓단말을 들엇다 나는 某友에게 宋金兩氏와의 交涉顚末을 報告하러가는 길이엇고 呂氏는政務總監을만나고 오는길이엇던 모양이다

◇十五 日正午에 倭皇의無條件降伏宣言이라되오를通하야發表되자呂運亨氏는安在鴻氏와提携하야建國準備委員會를創立하고大大的으로活動을開始하엿다 그리하야京城은勿論이고地方까지도建國準備委員會의勢力이波及하게되엿다 그리고一方에는 宋氏를 中心으로하야

◇國民 大會를 準備하게되엇다 오랫동안 沈默을지켜오다가 八月三十日에와서야 美軍이九月七日에 京城에들어온단말을듯고 急速히 이計劃을進行하게된것이다 國民大會의 主旨는 重慶에잇는 大韓民國臨時政府絕對支持를明白히表示하자는것이다 그리하야 九月七日에 地方有志의多數參席下에 會議를開催하고

◇臨時 政府絕對支持를決議하고 全國的大會를大大的으로 開催하기爲하야 準備會를設立하고 그를準備하며 執行委員을 選擧하야 當面의諸問題를處理케한것이엇다

그러면 어째서 呂氏와 合作하야建國準備委員會에 參加하지아니하고 따로國民大會準備會를結成하엿는가 第一은 倭政權으로부터 政權을밧는것이不可하다는것이오

◇第二 重慶에잇는 우리政府를 否認하고여기서바로政府를 樹立하는것이不可하다는것이다。이리하야呂氏를中心으로한建國準備委員會運動은結局人民共和國의成立及其政府의樹立까지進展하게되엿고、宋氏를發起者로한國民大會準備會運動은在重慶우리臨時政府絕大支持運動을展開케하야今日의形勢를馴致케한것이다

解放朝鮮의 科學技術問題

安東赫

朝鮮의科學技術問題는 다만國內의最大關心事일뿐만아니라 實로世界의 注目을끌고잇는것의하나이다 朝鮮이 日本의制壓으로부터 解放되여 科學技術的으로 能히 獨立自存할수잇는냐는點은事實上朝鮮獨立이實質的으로完成하는지又는形式上의自主인지를明確히 區分規定하는것이다

八·一五以後의 吾人의努力은 生產施設의確保와敎育의再建에 傾注되엿다 生產維持에는 日人의科學技術의 必要與否가 論議되엿스나 結局은 特殊技能者 若干人外에는 別般價値가업는것이 證明되엿다 그러나 이는우리의科學技術陣容이 豊足良質임이안이라 아무리微弱할지라도 朝鮮의科學技術人이此重荷를 雙肩에지고갈수밧게입는 義務感에不過하다 質的으로實際經驗이업고 더욱히中樞的實務의參與한일이업고 質的으로도不過二千名으로는 必要人員의 二十五分之一밧께안된다

그럼으로 科學技術敎育再建은 二重的으로 重要한問題이엿다 于先旣設工業敎育機關의再開가 實施되엿다 大學을除外하고는 比較的 우리가豫想한以上의 成功을 어든것은 國家를 爲하야多幸한일이라하겟다 그러나우리는國家建設上 가장適切한敎育制度를急速히 制定하여야할다 나는 理想으로는八、三、四年限의學制를渴望한다 學務當局에서 最近論議된內容을 알수업스나 六、六、三年限制가 巷間에傳해지는데 總年限十五年에는 또現下諸般事情에비추어 義務敎育六年制는適切하다 그럼으로中間的實際的方式으로는六、五、四年限制가妥當하다고 생각한다 最高敎育을맛친 優秀한靑年은 國費로硏究所에서 學科를一層練磨할것이다

이와갓치 應急措置를하드라도 科學技術의 種別及人員의 當面의不足은 生產再開에對한 最大의困難의하나임은 解消되지안는다/ 그럼으로科學技術의綜合的見地下의適正配置가絕對로 必要한것이다 大體로學術系統과 實務系統으로分配한後 學術系統은 其根據를 硏究所에두어 專門學術硏究와 基本計劃에從事하는 同時에敎授團을形成하야 少數의人員으로 專門的深度가갈흔 多數의學校를 比較的完全하經營할수잇도록 措處하여야하겟다 同時에職場敎育은 生產再開와併行하야 活潑히展開되지안으면 안된다

全國民이 渴望하는 工場再開는 아즉도成功치못함은 非常히 憂慮할일이다 其原因은 이미公表하엿슴으로 省略하기로하고 技術問題는 亦是前揭의形式과 指導層의配定을併用함이唯一의方法일것이다 技術部仕團것흔活動이 必要하다

以上은 應急的問題에不過한것으로 朝鮮이 世界文明國의 一員으로 옷々이살고 人類福祉向上에貢獻하랴는 理念의達成과는 非常한 距離가잇다 우리는 만흔科學技術人을海外에派遣하야 世界의主潮에 接觸吸收할方法을眞摯한 硏究를 이저서는안된다 日本帝國主義의朝鮮의學術硏究施設은 一大段히貧弱하다 그러나 이것만이라도 至極히貴重한文化財이다 旣存硏究所의整備綜合이 于先必要하다 硏究機關은 金錢으로만建設되는것이 안이오 一朝一夕에建設되는것도아니다 長久한時日과犧牲을거듭한後 비로소 獨自의科學文化의 開花結實을 보게되는것이다

八、一五以後의國民運動展開는 國史上偉觀의하나일것이다 科學技術運動은比較的外形的으로는 旗幟치못하엿으나 實質的으로는 健實[illegible]一的活動을續繼하[illegible]大體로는 幸福[illegible]學術院과工學[illegible]面에 꾸준한努力[illegible] 時로踏至하는[illegible] 處理 刻刻으로[illegible] 衆에對處하는데 忙[illegible]서그本來의目的達成이 延되여서는안된다 急速히 根本使命을的確히 把握後建國一路로 向하야突進하여야할것이다

解放後叢出하는 劇團과樂團

거리의建物마다 店舖의壁마다 이지음의서울거리는 무슨劇團 무슨樂團의포스타ー로 빼안힐 업옷을채렷다 서울에만 劇、樂團數가 都合五九團體를 헤이는데 그중名簿를 적어보면아래와갓거니와 우리가지금 걱정되는것은 이놀나운수효의劇團이 모다 한劇團의平均上演을 一週日平均으로치드래도 三九三日 卽一年도넘는平로가 째워진다。그런데 시방서울엔 永登浦의一館과 和信뉴ー스館까지처도 劇場은 十四館박게 업슴을 안히라 其中에殆半은 映畵가 占領하고잇는現狀이는 公演할可能性이조흠도 업다。어째뜬 이現狀은아모리過渡期的인 모습일발정 到底히 그대로默觀할수업는일이안일수업다。

(新)(刊)(紹)(介)

▲文化戰線 創刊號(月二回發行)臨時定價五十錢 發行所 서울市鍾路二丁目一〇〇 朝鮮文化建設中央協議會 電話光化門三五九五

▲서울週報 創刊號 臨時定價二圓 發行所 서울市花園町四五 서울新聞社 電話本局三六〇三番

ClibPDF - www.fastio.com